



[금융] NH농협은행 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 디지털 금융혁신 선도 06



Economy

코스피	2210.60 (+0.99)	코스닥	751.92 (+0.21)
금리 (미국 3년)	1.72 (-0.01)	환율 (원/달러)	1144.70 (+8.10)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수송보국 '큰 별' 지다

지난 1974년 대한항공에 몸담은 이래 반세기 동안 '수송보국(輸送報國)' 일념 하나로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항공사로 이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 시간)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사진/뉴시스

美서 폐질환 치료 중 급속 악화 부인 이명희 등 가족, 임종 지켜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8일 새벽(한국 시간) 0시 16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운구 및 장례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사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조 회장이 폐가 굳어지는 질환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LA 뉴포트비치 별장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숨진 곳은 LA 한 병원이며,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2·3면]

조 회장은 지난 194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

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 회장은 서울에서 경북고등학교를 수학한 데 이어 미국으로 유학해 미국 메사추세츠 주 쿠싱 아카데미(Cushing Academy)를 졸업했다. 이어 인하대 공과대학 학사, 미국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인하대 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취득했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후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올랐다. 그는 반세기 동안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항공사로 이끄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또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 항공업계에서 명망을 높이며 사실상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조 회장은 '항공업계의 UN' 이라고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권을 높여왔다. 또 조 회장은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역임, 몽골로부터 2005

년 '북극성' 훈장을 받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았다. 이 외에도 평창올림픽 유치위원장, 전경련 한미세계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 교류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조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의 '3세 경영'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조 회장은 부친이자 그룹 창립자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난 다음 해 2대 회장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3세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경영진 중 유일한 오너 일가이기도 하다. 조 사장은 대한항공 이 외에도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사장(사내이사·지분 2.34%), 정석기업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우리금융지주, 출범 3개월 만에 첫 M&A 성공

동양·ABL자산운용 인수계약 체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비은행 부문 40% 확대'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주 출범 3개월 만에 첫 인수합병(M&A)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5일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협상을 끝내고,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첫 번째 M&A 성과로 1등 종합금융그룹 이ks 목표 달성을 위한 비은행 확충



지난 5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본관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과 뤼젠롱 동양생명 사장이 SPA(주식매매계약)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우리금융지주

전략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은 이달 초 국제자산신탁 대주주와 경영권 지분 인수

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실사를 거쳐 최종 인수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연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양호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수요 증대 등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그룹 계열사와 운용 노하우 공유와 펀드상품 공동개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룹 가치를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세계최고' 5G 생태계 구축 30조 투자·일자리 60만개

정부, 5G 플러스 전략 발표

정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산업 기회를 모색할 5G+(플러스) 전략을 수립했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 콘텐츠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드론, 로봇 등 10개 산업분야를 5G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5면>

이를 통해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최소 30조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초기 이동통신사 망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 제조사 장비 투자 등 민간 분야에서 20조원 규모,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5G 테크 콘서트'를 열고,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5G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돼 주는 고속도로에 비견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정한 5개 서비스와 10개 산업 분야는 전문가 70여명과 6대 기관이 함께 선정했다. 예를 들어 5G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개발·보급하고, 급급차와 병원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화재현장에서는 응급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공장 업종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확충한다. '5G-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수익모델 보급·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5G+(플러스) 전략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산을 위해 '5G 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10대 핵심 산업으로는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AR·VR 디바이스 등을 꼽았다.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5G 플러스 스마트 SOC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교육, 농업, 환경, 의료 등에도 5G 솔루션을 보급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내년까지 이동통신사에 망 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1%에서 2~3% 공제해준다.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업 투자도 진행한다.

아울러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에는 스톡셀, 중계기 등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오는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거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



분주한 산불 진화 헬기

8일 오전 9시 24분께 잔불이 재발화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춘리 산불피해 지역에서 출동한 산불 진화 헬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